

開會人事

李 相 禹

(西江大 東亞研究所長)

오늘 우리는 “아세아에서의 民主主義受容(I)”이라는 主題로 第3次 韓·中·日 政治文化比較 國際會議을 시작합니다. 앞선 會議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이 會議의 目的과 趣旨를 잘 理解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會議은 20世紀末의 韓國, 中國, 日本 등 亞細亞國家들의 政治文化의 正體性(identity)을 糾明하려는 長期研究計劃의 一環으로 열리는 會議입니다.

韓國, 中國, 日本 등 東亞細亞國家들은 오랜동안 固有的 政治文化特性을 維持發展시켜 왔던 國家들이었으나 지난 2世紀동안 西勢東漸의 큰 물결 속에서 엄청난 西洋文物의 威力 앞에서 一時 自己固有的 正體性을 잇는 混亂과 悲劇을 겪어왔었습니다. 익숙지 않은 西洋의 思想, 文化, 制度의 受容으로 分明 近代化의 契機도 포착할 수 있었지만 生소한 西洋思想과 文化, 價値觀등을 受容하는 과정에서 傳統, 思想, 文化, 價値觀과의 葛藤을 겪으면서 큰 混亂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韓國, 中國, 日本 등에서의 西洋의 受容은 그러나 다른 地域에서의 受容과는 다른 點이 많습니다. 모두 自己의 固有的 傳統文化의 틀속에서 外來思想인 西洋思想을 “格義”하여 새로 再構成하는 작업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再創造 과정을 통하여 오늘날 韓國, 中國, 日本에는 西洋에 起源을 두었으나 새로운 思想, 理念體系로 자리잡은 많은 思想體系들이 存在하게 되었습니다. Communism이 共產主義로 그리고 나아가서 毛澤東思想, 金日成主體思想으로 格義되었으며 “Democracy”가 “民主主義”로 再創造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날에 와서 韓國, 中國,

日本은 새로운 政治文化의 正體性을 定立해 가고 있습니다.

西江大 東亞研究所는 韓國國際文化協會의 積極적 지원을 받아 “亞細亞에서의 西洋의 受容”이라는 거창한 研究課題를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미 第1次와 第2次의 國際會議를 통하여 “共產主義受容”을 다루었으며, 오늘 “民主主義受容”問題를 다루는 첫 國際會議를 열게 된 것입니다. 西江大 東亞研究所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 주제를 다루면서 “亞細亞의 正體性 定立”을 위한 學問的 기초제공에 힘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會議의 시작에 즈음하여, 이 會議趣旨를 理解하시고 積極 후원해주시는 韓國國際文化協會 金聖鎭會長님께 深甚한 感謝의 뜻을 전하며, 아울러 멀리 海外에서 오신 여섯분 外國人學者를 비롯하여 이 뜻깊은 會議에 熱誠껏 參加해 주신 여러 學者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흘동안 進行될 이 會議에서 좋은 討論을 벌여주실 것을 期待하며 參席者 모든분들에게 祝福이 있기를 빕니다.

感謝합니다.

1987年 6月 25日